

‘달의 계곡’의 풍요로움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2009년 9월, 나는 칠레의 아타카마(Atacama) 사막 여행을 앞두고 있었다. 충동적으로 칠레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전까지 나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고, 사막에 가본 적도 없었다. 칠레에 잠시 머물고 있던 친구는 절반쯤 통보하는 식으로 우리가 아타카마 사막에 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왔다. ‘사막’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나는 아주 잠시 영화 <아라비아의 로맨스>의 포스터 속으로 ‘점프’를 ‘뛰었’다. 왜 하필 본 적도 없는 <아라비아의 로맨스>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내 머릿 속의 사막이란 몇몇 사진과 영화의 작고 네모난 프레임 속 풍경이었으며, 사막에 대한 나의 상상력이란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 옷깃으로 입을 막아야 하는 커다란 아파트 놀이터 같은 곳 정도였다. 사막 다음으로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정보가 입력됐고 나는 간단한 구글링으로 그곳이 ‘2천만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지구’라는 공간과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이라는 수식어와 ‘2천만 년’이라는 (내 기준으로는)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에 대해 내 작은 머리통을 잠시 굴려 좌표를 찍어볼까 했지만 관두고 말았다. 클릭, 클릭.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이름의 파일명을 가진 이미지들이 사막의 모래알만큼 펼쳐졌다. 그것들 역시 <아라비아의 로맨스>의 포스터나 스틸컷과 다르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쯤 본 것 같은, 그리고 어딘가 거기쯤 있을 것 같은, 그 반대라도 해도 크게 상관 없었다.

수십 시간의 비행 끝에 나는 아타카마 사막에 도착했다.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San Pedro de Atacama)라는, 해발 2400km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 숙소를 잡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하루짜리 사막 관광 프로그램을 예약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투어 프로그램의 이름은 ‘달의 계곡(바예 델 라 루나, Valle de la Luna)’이었다. 말 그대로 ‘달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막 어딘가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이었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에 있는 ‘달의 계곡’이라. 힘차게 모래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소리가 쫓가에 웅 하고 지나갔다. ‘달’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부터 다음날 그곳에 발을 디딜 때까지 나는 닐 암스트롱이 흰색 수트를 입고 아폴로 11호에서 내려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영상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 장면은 제멋대로 주성치가 영화 <도성>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걷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점프’를 ‘뛰었’고, 그 이후 그저 그런 장면들이 스쳐갔다.

다음 날, ‘달의 계곡’에 도착했다. 가이드는 이곳의 환경이 왜 달과 유사한지에 대해 한참 설명했다. 나를 포함해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은 “정말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달이라니, 멋지다” “달에 가면 진짜 이런 풍경일까?” 같은 말들을 주고 받으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렴풋한 이미지로만 지장되어 있는 달을 불러내 그 순간과 그 공간에 대한 기억에 태그를 달았다. 가이드는, 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것을 믿지 못하는 음모론자들 중 몇몇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 촬영한 모든 영상과 사진을 이곳에서 촬영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음모론자들에 대한 음모론인 것 같은 이 허술한 이야기를 들으며 ‘달의 계곡’을 걸었다. 그렇게 그 날의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고, 이후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좀 더 여행한 다음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5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아타카마 사막을 다시 떠올린 건 올해 초 아시아를 들쭉이게 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때문이었다. 극 중에서 별에서 온 도민준(김수현)은 구글에서 검색해 출력한 것이 분명한 아타카마 사막 사진 몇 장을 들고 “내가 지구상에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일조량이 많고 건조하고 하늘도 맑아서 밤이 되면 사막 위로 별이 쏟아진다는 기분이 들거든”이라고 했다. 아타카마 사막은 줄지에 ‘도민준이 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됐고, ‘도민준이 가고 싶은 곳, 아타카마 사막’이나 ‘<별그대> 김수현이 보여준 사진 속 사막은 어떤 곳?’ 같은 제목의 기사가 포털 뉴스 연예 페이지에 올라오곤 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박민하 작가의 전시 <텔레캐스트 바그다드>를 준비하면서 나는 다시 사막을 떠올렸다. 박민하 작가의 영상 작업 ‘전략적 오퍼레이션—하이퍼리얼리스트릭’ 속의 모하비 사막은 내가 다녀온 칠레의 사막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막의 영화관 장면이 나를 사로잡았다. 스크린 없이 막연히 사막의 어떤 면을 향해 놓여져 있는 수많은 객석 의자를 보다가 나는 ‘사막’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졌다. 말하자면, 스크린이 없는 사막의 영화관에서 내 머릿 속으로 촬영해둔, 아니 짜깁기해둔 사막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꺼내 상영하고 싶어졌다.

사막에 대해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제목이 없는 문서는 그 자체가 황량한 사막이나 다름없었다. 뭘 쓸까, 생각나는 단어들을 구글에 돌렸다. 내가 다녀온 아타카마 사막의 ‘달의 계곡’이 어떻게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지에 대한 문서가 걸렸다. 그 문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원래 이치구알라스토(Ischigualasto)라고 불리곤 했단다. 이치구알라스토는 안데스 지역에 살았던 케추아족이 쓰던 말로, ‘달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단어의 뜻에 기대어 1940년대 이 지역의 유지였던 비토리노 데 헤수스 헤레라(Victorino de Jesús Herrera)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달의 계곡’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8년 기자인 로헬리오 디아즈(Rogelio Diaz)가 처음으로 기사에서 ‘달의 계곡’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1967년 사진가 안토니오

레가레타(Antonio Legarreta)와 기자 페데리코 키르부스(Federico B. Kirbus)가 『라 프렌사(La Prensa)』라는 신문에 이 곳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달의 계곡’의 풍요로움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Riqueza y belleza natural del Valle de la Luna)」이라는 제목으로 실으면서 ‘달의 계곡’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이 지역은 원래 이름인 ‘이치구알라스토’보다 ‘달의 계곡’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됐다.

1967년은 인류 최초로 달에 첫 걸음을 내디딘 1969년 7월 20일로부터 약 2년 전이었고,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가 끝날 때까지는 인간을 달세계에 착륙시켰다가 무사히 지구까지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고 공언한 1961년 5월 25일로부터 약 6년 후였다. 모두가 우주를 꿈꾸었던 1960년대, 사막의 어떤 곳을 ‘달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곳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읽고 또 그곳에 다녀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그 기사는 화제가 되기 충분했을 거라고, 달에 대한 1960년대의 열망과 내가 다녀온 그 땅의 메마른 공기가 아폴로 11호의 착륙 이미지를 다리 삼아 호환되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는 이내 고개를 저어야 했다. 그것도 매우 세차게.

웹페이지에서 또 다른 페이지로 ‘점프’를 ‘뛰다’보니 ‘달의 계곡’이라는 지역과 지명에 대한 설명들이 묘하게 어긋난 것들이 발견됐다. 설마 하는 생각에 뒤져보니 ‘Valle de la Luna’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남미에만 최소한 세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다녀온 칠레의 ‘Valle de la Luna’가 있고, 옆 나라 아르헨티나에도 ‘Valle de la Luna’가 있다. 내가 신나게 검색했던 이치구알라스토와 관련된 지명 이야기는 아르헨티나의 ‘Valle de la Luna’였다. 그 옆 나라 볼리비아에도 ‘Valle de la Luna’가 있다. 클릭질을 멈추고 나는 중얼댔다. ‘달의 계곡’은 전국 곳곳에 생겨나는 ‘가로수길’ 같은, 우주 시대 유행어나 다름없는 지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니, 관광객들을 위해 남미에 나라마다 지어놓은 거대한 세트장이나 체험형 놀이공원인 것이 확실하다고.

허탈한 마음으로 위키피디아의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Valle de la Luna’ 페이지를 다시 읽다가, 마지막 문장에 손이 걸렸다. 과학자들이 이 지역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화성 탐사선의 프로토타입을 이곳에서 테스트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 언제적 달이야. 이제 화성이지.

